

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필자: 김희국 (Hugo W. Kim)

I. 개인-국가-국제관계

사회계약과 일반의지(정치): 인간의 생명은 자연(신)이 주는 것으로, 태어나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노동으로 재산을 모은다. 따라서 생명-자유-재산은 타고난 권리이며 이는 인간의 법에 선행한다. 홉스, 로크, 루소 등 사회 계약론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제한된 자연자원으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전개하므로, 개인은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위임하고 그 일원이 되어 스스로 동의한 의무에 복종한다. 공동체는 사회계약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고 일반의지(General Will)에 의해 통치하며, 개인은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 개인은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역량을 균형 있게 개발하여,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직장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적성에 합당한 전문화 (경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욕구를 3가지로 구분한다. (1) 기본적인 욕구 - 생리적 욕구와 안전 및 보안, (2) 심리적 욕구 - 소속과 사랑 및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 (3) 자기만족의 욕구 -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기 가치를 구현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리, 정의, 아름다움, 사랑 등이며, 각자가 가장 선호하는 가치를 찾아서 직업을 선택한다. 이를테면, 진리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면 학자나 교수가 적합하고, 정의를 추구하면 법조계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언론기관의 직업이 적절하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음악, 미술, 조각, 무용, 시문학 등의 분야가 적합하고; 사랑(박애)을 추구하는 사람은 종교, 교육, 의료, 사회사업 분야가 개인의 적성에 적합할 것이다. 개인이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사회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개인과 국가 & 국가와 국제관계: 개인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개인과 사회계약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번영(공통선)을 추구한다. [개인]의 명시된 의무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등이나, 이에 더하여 첫째 개인은 잠재력을 키우고 직업적 전문성을 개발하여 생산성 있는 개체가 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주인으로 정부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는가를 감독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기본적 욕구는 안전보장과 경제성장이며, 사회적 욕구는 국내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선택한 직업에서 생산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며, 국가는 개인의 역할을 통합하고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며, 외교-국방-경제정책을 바르게 세워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제기: [개인이나 기업]이 우수한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내치 외치에서 최선의 정책을 세워 집행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이 부실하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관계]에서 상위체계인 국제질서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초강대국이 아닌 군소국가는 국제질서에 순응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흑해 지역에서 터키를 누르고 제해권을 확보하여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크림리아 전쟁(1853-56)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남진을 우려하여 터키를 지원하자, 러시아는 패전하여 지중해의 제해권을 상실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여 크림리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되었으나, 2014년 러시아가 크림리아를 침공하여 다시 지배하게 되었다. 이처럼 역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하여 국제관계가 바뀌고 [국제질서가 변화] 하였다. 또한, 세계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통하여 번영해 왔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격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안정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II. 세계질서의 변화

(a) **빈 회의와 유럽협조 실패**: 1815년 빈체제(Conference of Vienna)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승국들이 유럽의 정치체제를 프랑스혁명 이전의 보수적 왕정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유럽은 이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혁명의 물결이 넘쳐흘러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1)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을 널리 전파하였다. 나폴레옹 전쟁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과 함께 피정복 국가가 정치적 자주권의 상실하여, 그들의 분노와 증오는 애국심과 국민국가를 갈망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를 불러왔다. 한편 프랑스는 (왕조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징병제로 전환하여, 나폴레옹 군대는 승리의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민족주의 정신을 갖게 되었다.

(2) **산업혁명과 사회주의**: 영국의회는 183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였다.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노동여건이 나빠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는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욕구를 억압하여 1848년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을 수립하여 나폴레옹 3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계급투쟁으로 대중을 선동하였다. [우리의 역사는 계급투쟁 역사이다.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지배계급이 떨게 하라; 노동자 계급은 쇠사슬 외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 승리할 세상만 있을 뿐이다; 노동자 계급이여 단결하라.]

(3) **크림 전쟁(1853-56)**: 러시아가 (오스만 튀르크가 지배하는) 몰다비아 공국과 왈라키아 공국을 침공하여 오스만 제국과 전쟁이 발발하였다. 러시아의 발칸 진출에 위협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오스트리아는 중립을 취하였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거점으로 연합군과 싸웠으나 대패하여, 흑해에서 제해권을 상실하고 러시아 해군은 20년간 흑해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빈체제는 붕괴하였다.

(b) **국가 권력의 형성과 제국주의:** 프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전쟁(1866) 및 프랑스와 전쟁(1870-71)에 승리하여 독일제국을 선포하였다. 가리발디의 지도력으로 1861년 이탈리아는 통일하고 1866년 베네치아와 로마가 통합되었다. 러시아-터키 전쟁(1877-78)으로 베를린 회의에서 발칸제국 독립을 인정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식민지 정복에 나서면서,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을 하였다.

(1) **아메리카에서의 제국주의:**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1846-48)으로 텍사스를 병합하여 멕시코와 국경선이 리오그란데로 변하고,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주가 미국에 편입되고, 미국의 영토는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태평양 연안까지 확장되었고, 대서양 횡단철도 건설과 인디언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인들이 서부로 집단 이주하였다.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1898)으로 파리조약에서, 스페인은 쿠바를 포기하고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에 양도하였으며, 파나마 운하의 개통과 함께 미국은 태평양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였다.

(2) **아프리카의 분할:** 1871-1900 기간에 아프리카는 유럽 제국주의의 침략, 외교적 압박, 군사적 공격 등으로 정복되어 식민지로 변하였다. 후발주자인 독일은 모로코와 알제리 등에서 프랑스의 지배에 도전하였고, 프랑스는 콩고 일부를 독일에 양도하여 위기를 해결하였다.

(3)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네덜란드는 1815년부터 자바섬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였고, 다음 10년에 영국은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북보르네오를 장악하고 수마트라를 요구하였으며,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를 식민지로 만들고, 독일은 동뉴기니아, 마살 군도, 솔로몬 군도를 병합하였다. 중국은 아편전쟁(1856-60), 태평천국의 난(1850-64), 의화단 운동(1899-1901)으로 외세의 침략에 계속 저항하였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시대를 열어, 서구 문명을 모방하여 20년 이상 근대화의 노력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청일전쟁(1895)과 러일전쟁(1905)에 승리하고 조선과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c) **세계대전과 냉전**: 발칸동맹은 1912년 10월에 오토만을 공격하여 제1차 발칸전쟁(1912-13)으로 터키는 발칸에서 많은 영토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영토 배분을 둘러싸고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 지방 전부를 차지하려고 세르비아와 그리스에 선전포고하여 1913년 6월 제2차 발칸전쟁이 일어나 40 여일 만에 불가리아는 항복하였다. 불가리아는 제1차 전쟁에서 잃은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였으며, 터키는 유럽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1) **제1차 세계대전**(1914-39)은 상호방위동맹, 제국주의 경쟁, 군국주의,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독일의 팽창정책에 대항하는 러시아-프랑스-영국의 연합세력이 발칸에서 충돌하여 전개된 세계 전쟁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군은 혁명으로 철수하고, 1918년 여름 미국의 병력이 유럽에 도착하여 전쟁을 승리로 마감하였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의 군사력을 약화하고 재기불능의 전쟁배상을 부과하며, 국제연맹을 창설하였다.

(2) **제2차 세계대전**(1939-45): 1930년대 대공황으로 유럽 안보체제가 붕괴하고, 독일은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여 군대를 재무장하였다. 2차대전은 연합국(영국, 소련, 미국 등)과 추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대적한 전쟁으로, 히틀러의 독일군이 1939년 9월 폴란드 서부국경을 침공하고 스탈린의 소련군이 폴란드 동부 국경을 침공하여 시작된 전쟁이다. 유럽 전선은 1945년 5월 베를린이 함락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전선은 8월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였다.

(3) **냉전과 국지전** (1945-85): 전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시작하였다. 미국은 마셜계획으로 유럽의 전후복구를 지원하고, 소련은 공산주의 위성국가로 세력을 확장하며, 양대 진영 간에 냉전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1950-53), 베트남전쟁(1955-75), 아랍-이스라엘 6일 전쟁(1967) 등의 국지전이 전개되었다. 한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민족자결주의의 정신에 따라 자국의 정치체제를 결정하여 독립 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으로 국제질서는 유동적으로 움직여, 1973년 OPEC 석유 수출금지가 국제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d) 세계화와 새로운 도전: (1985-2015): (1) **소련의 붕괴와 자본주의로 변천:** 1991년 1월 모스크바에서 10만 명이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1991년 12월 그는 사임하고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을 통치하고 위성국들은 독립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옐친을 계승하여 2000-08 기간에 석유와 가스 가격의 인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성취하였다. 푸틴은 2012년 대통령에 재선되어 2024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2) **유럽의 통합:** 유럽연합은 2021년 현재 27개 회원국(4억 5천만 인구)의 정치-경제 통합체이며, 회원국은 단일 시장을 구성하며 단일 화폐인 유로를 사용한다. 회원국 간에는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자유롭다, EU는 공동 외교 안보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21개 회원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고, 비가입 국가는 군사적으로 중립적이다. EU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여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동한다.

(3) **중국의 팽창:** 중국은 덩샤오핑이 해안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방하여 시장경제의 이득으로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무역과 투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정부에 의한 자원의 배분, 비전문적 기업경영,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투자, 빈부 간의 소득 격차, 활동인구의 감소, 정부 보조금 지급, 환율의 정부 개입, 만연한 부패 등의 문제가 있다. 중국이 지배하는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점령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인접국들과 영토분쟁을 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4) **여타 문제:** 아프리카는 민족 분쟁, 독재, 저개발 경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미미한 상태이나, 이란은 정치개혁과 핵무기 개발 문제를 우려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지역 안보, 마약과의 전쟁이 시급하다. 새로운 세기는 국제협력, 경제관리, 군비 통제, 비정부 기구의 역할 중요하다.

(e) 국제관계 이론: 현실주의 vs. 자유주의
 다자, 양극, 단일 지배조건에 의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순환 적용

Power Structure Supremacy	U.S. Foreign Policy	Major Tools
Multipolarity (19 th Century)	Realism 현실주의	Military Alliance (Weak & Flexible)
Bipolarity (1945-1991) (2015-Present)	Realism 현실주의	Military Alliance (Strong & Inflexible)
Unipolarity (1991-2015)	Liberalism 자유주의	Economic Cooperation

자유주의(Liberalism): 사회는 여러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 관계의 의제는 복합적 이슈이므로 군사적 이슈가 계급제도가 없는 의제를 지배하지 못한다. 복잡한 상호의존적 이슈가 우세하면, 군사력은 타 정부에 향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책수단으로 군사력 의존은 감소하고, 경제나 상호의존적 다른 수단이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키운다. Robert O. Koehane &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and Transition* (Boston, MA: Brown University Press, 1977).

현실주의(Realism): 국제관계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비군사적 협력에 의존하는 자유주의가 작동하지 못한다. 국가는 생존 수단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에 초점을 두지만, 사회 집단의 권익을 위해서는 취약하다. 반대로 국가주의는 국가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자유주의 주도권 정책을 버리고, 현실주의적 억제외교정책을 펴야 한다. John J. Mearsheimer,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8).

국민주의(Nationalism): 단일 민족의 경우 민족주의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국주의이다. The New Nationalism (8 Essays), *Foreign Affairs* 98(2) (March/April 2019), 10-68.

(f) 소결론: 미국과 중국의 냉전은 불가피하다

조지 프리드먼은 *The Next 100 Years* (2009)에서 2020년대에 러시아와 중국은 분해될 것이다. 중동에서 터키와 아시아에서 일본이 일어나고, 동부 유럽에서 폴란드가 블록을 형성할 것이며, 미국은 21세기에 계속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 하였다. 존 미어샤이머는 *Foreign Affairs*(November/December 2021)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중국의 도전: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세계는 자유주의 물결이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정치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기대에서, 저개발국인 중국을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키고 투자와 무역에서 최 수혜국으로 대우하였다. 그러나 중국 회사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서방의 기술을 무제한 복사하여 시장에서 불평등하게 경쟁하였다. 중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군사력이 증가하자, 위협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기술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억제하고, 자국의 공급체계를 조정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전략으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남지나 해를 불법 점거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과 군사적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마라톤 경주: 미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아직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모든 분야에서 점차 발전하여 선진 문명에 접근해 오고 있으며, 반세기 후에는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격차가 좁혀져, 어느 시점에서 미국의 수준과 대등하게 될 것이다. 이 마라톤 경주에서, 미국과 여타국가들(the rest)의 발전 속도에 의하여 그 간격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최상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자족과 시장경제, 대양으로 보호된 대륙에 적정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들의 발전 속도가 빠르며, 여타국가들이 연합하면 그 세력이 미국보다 더 강하게 된다.

III. 자본주의의 미래

이론적 발전: (a) **고전 경제학:** 근세초기 유럽은 중상주의 이론이 지배하여 무역흑자를 유지하면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하였으나 이론적 오류였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은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자유 방임에 의한 자원의 배분과 분업에 의한 전문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의 저축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를 제안하였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정치 경제의 원리와 세제(1817)에서 비교우위에 기초한 자유무역은 자원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생산을 증진한다고 하였다.

(b) **산업혁명과 사회주의:** 산업혁명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만이 증가하여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1848)을 발표하고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선동하였다. 그는 자본론(1867)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의 노동을 강요하여 잉여가치로 착취하고, 그 이윤으로 부를 축적한다. 그러나 기계 장비 등 고정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수익성이 점점 감소하여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한다. 자본가계급은 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여 붕괴하고,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장악한다.

(c) **신고전 경제학:** (1) 영국 윌리엄 제임스는 정치경제학 이론(1871)과 오스트리아 칼 멩거의 경제학 원리(1871)는 특정상품의 소비가 증가하면 한계효용 가치가 감소한다는 한계효용 이론을 확립하여 노동가치설은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2) 레온 왈라스의 일반균형 이론과 빌프레도 파레토의 최적(효율성)이론은 소비에서 가용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에서 허용된 비용으로 산출 극대화하며, 교환에서 낭비가 없는 교환을 유도하였다. (3) 앨프레드 마셜은 경제학 원리(1890)를 출간하여 신고전 경제학 체계를 확립하여, 반세기 동안 세계대학에서 경제학의 표준교재로 사용하였다.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한계효용 법칙을 적용하여 생산-소비, 토지-노동-자본-조직, 수요-공급 및 가치, 국민소득의 배분 등 신고전 경제학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4)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신고전 경제학은 세계 대공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다.

(d) **케인스 경제학:** 기존의 경제이론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에 따라 상품이 공급되면 소득이 창출되고, 소득은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일시적 과잉 공급이나 실업은 물가와 임금의 신속한 조정을 통해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칙은 세계 대공황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케인스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총수요의 부족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며, 물가나 임금이 신속히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요가 부족하면 재고가 쌓이고 고용이 감소하며 실업증가로 소비가 더욱 감소하고 따라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이론은 경제학계에 큰 반응을 불러왔다. $[Y = C + I + G + NE]$ 수식에서 Y는 국민소득, C는 총소비, I는 총투자, G는 정부 예산(정부 소비와 투자), NE는 순 수출(총수출-총수입)이다. 고로 국민소득은 총수요(총소비, 총투자, 정부 예산, 순 수출)와 같으며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으로 화폐의 공급을 늘리고, 재정정책으로 인프라 건설 등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세계 대공황에 빠졌던 서방국가들이 케인스의 처방을 받아들여 1960년대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케인스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으나, 2007-10년 금융위기와 COVID-19 사태에서 케인스 경제학이 작용하였다.

(e) **현대 거시경제학의 방향:** 현대 국제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위협, 원자재 공급의 부족,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금융 동향이 흔히 군소국가의 국내정책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경제이론의 결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각국 경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폐쇄경제 모델에서 탈피하여 대외무역 요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학만을 중시하기보다 미시경제학 이론을 거시경제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종교 등 관련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솔로의 성장이론(1957)과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이론(1972)은 거시경제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미국형 자유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의 문제

개인의 시작조건의 문제: 개인소득의 근원은 자본과 노동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서 오는 소득 이외에, 상속받은 자본으로부터 임대료나 이자를 받아 소득을 추가한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노동으로 가져오는 소득이 전부이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여건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전문직종에서 높은 소득을 받아 개인소득의 격차는 더 커진다. 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개인 여건이 동등한 경우에,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 사이에 개인소득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세대 간에 신분 상승과 계층 이동이 어렵게 된다.

정부 능력의 한계: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여 경제성장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빈부의 소득 격차가 당연히 발생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자유를 추구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게 하려고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정부가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교육과 의료지원을 향상하며 저 소득층에 복지혜택을 증진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에 한 국가의 가용자원이 제한되어 복지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 만일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들이 저항하여,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성장(효율)과 소득 분배(평등)는 정책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

성장과 분배의 교환관계: 국민 총생산에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투자(I) 부분이 증가하고, 분배 위주의 정책은 소비(C) 부분이 증가한다. 제한된 가용자원에서 투자가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이를테면, 자원 배분을 [투자:소비]에서 7:3 또는 3:7 비율을 택하면, 전자는 현재의 내핍을 요구하나 미래에 풍요를 수확하고, 후자는 현재의 소비로 만족하나 미래에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정책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시계추와 같이 좌우로 움직여 제3의 길에서 적절한 타협을 하게 된다.

[중국형 정치 자본주의] 자원 배분의 문제

중국형 정치 자본주의는 시장을 개방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이득을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여,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의지로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개방 초기에는 외국 자본의 유입과 노동집약적 상품의 효율적 생산 및 수출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일대일로 주도권(Belt and Road Initiative)으로 유럽에 이르는 도로 항만을 건설하여 중국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 권력이 경제를 장악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 1. 자원 배분의 문제 2. 기업경영의 문제
- 3. 방만한 부채투자와 원리상환의 문제
- 4. 인구 노령화와 활동인구의 감소 5. 지역 및 계층 간 소득 격차의 문제
- 6. 정부 보조 및 환율 조작 7. 부정부패로 경제적 효율이 감소
- 8. 무역분쟁과 안보위협으로 **중국 경제는 계속하여 추락**

자유 자본주의 vs. 정치 자본주의의 충돌 (소결론)

(1) 자유 자본주의는 성장 위주의 효율을 추구하지만, 정치 자본주의는 분배 위주의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직면하고, 후자는 자원의 배분에서 잉여와 병목으로 효율성을 상실한다.

(2) 경제정책에서 성장 대 분배를 7:3 또는 3:7로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많이 하면 풍요 속에 기쁨이 오고,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줄이면 빈곤 속에 고통이 온다.

(3)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제도도 자원의 제약과 정부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개인의 시작조건을 평등하게 해줄 수가 없다. 불평등한 시작조건을 극복하려는 개인의 노력 없이 국가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IV. 한반도의 미래

미래예측의 고려요소: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1) 문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치와 법률의 이행 수준, 경제적 여건, 사회 문화의 성숙도, 과학 기술의 발전 정도이다. (2) 이들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이해 충돌의 문제를 피해야 한다. (3) 행동 주체의 범위가 다르므로 개인과 기업, 국내 정치, 국제관계의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며, 특히 상위체계인 국제관계와 하위체계인 국내 정치의 전략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 (4) 역사의 변화는 장기적이므로 지도자는 원대한 비전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 프러시아는 1740년 프레데릭 2세가 오스트리아계승전쟁을 시작하여 1871년 보불 전쟁에 승리하여 120년 후에 독일제국을 수립하였다. (5) 국제관계에서 군사적 동맹은 중요하다.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무역과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는 산업구조에서 상호 보완적이므로 합작 투자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면 상호 이득이다. (6)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나, 사회주의적 정치요소인 분배정책을 가미하여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사회 전체의 화합이 중요하다.

한국의 정책 과제

자본: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에 투자 하여라. 공무원 증원, 생산성 없는 일자리. 북한 퍼주기는 낭비이다.

노동: 무법천지 귀족노조를 적법으로 단속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라. 이는 취업의 불공평, 국제 경쟁력을 감소, 외국인 투자 방해이다.

기술: 정치임명 일지라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치임명이 아닌 인사는 직업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장: 정부의 시장개입은 공평한 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을 조장한다.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여라.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라.

공정: 사람과 돈을 관리하는 일에 투명하고 공명정대 하여야 한다. 금융 비리, 인사비리, 부정선거를 엄단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 2050 (전망)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 인구 85 Million, 개인소득 년 \$50,000 상회하는 5G 국가로 진입할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기초위에 상호 보완적 기업합작을 확대하여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양국관계를 강화하면 상호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으로 경제 및 군사력 증강;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력 약세로 국제질서에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의 군사력 건설을 지원하여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필자 소개

김휘국(1941-)박사는 1959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근 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한 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66년에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전후방에서 복무하였다. 그는 군 유학생으로 워싱턴에 있는 미국가톨릭대학교에 유학하여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국방대학원에서 가르쳤다. 전역 후 미국 워싱턴으로 이주하여 선배 교수들과 함께 국제한국학회(ICKS)를 창립하였고, 연례학술회의를 주관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면서, 국제 전략문제연구소(CSIS) 객원 연구원으로 5년간 극동 문제 연구 활동에 참여하였다. 김 박사는 2008-2018 기간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학기마다 대학원 2학급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였다. 한편 김 박사는 인류 문명사(History of Politics and Economy)를 집필하여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 영문저술 총 9권을 2020년에 출간하였다. 그의 도서 출판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icks.org/hugo33kim/>)에서 볼 수 있다. 김 박사 내외는 현재 워싱턴 근교 페어팩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딸은 성혼하여 Fairfax VA와 Berkeley CA에 살고 있다.